

弘報室 : (02)
6050-3603~6

* 이 자료는 1/16(木)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15(水) 11:00부터

※ 문의 : 노동환경팀 박재근 팀장(02-6050-3481), 전준범 대리(02-6050-3484)

500대 기업, 올해 대졸 채용규모 ‘작년 수준’

- 대한상의 500대 기업 조사 ... 대졸 신규채용규모 243개사 30,902명, 지난해보다 1.5% 감소
- ‘유통·물류’(2.9%), ‘정유·화학’(2.7%) 늘고, ‘건설’(-13.8%), ‘섬유·제지·잡화’(-9.0%)는 줄어
- 1사당 평균채용인원 ’13년 129.1명 → ’14년 127.2명 ... 상위 30위(0.1%↑), 101~200위(1.1%↑)

올해 주요 기업들의 대졸 신입직원 채용규모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 별로는 유통과 정유·화학의 채용규모는 조금 늘어나지만, 건설과 섬유·제지는 다소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243개사의 채용예정 인원이 30,902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들 기업이 작년 채용한 31,372명보다 1.5% 남짓 감소한 수치다.

<표1> 500대 기업 채용예정 인원
(채용계획확정 243개사)

2013년 채용인원	2014년 채용예정	증감률
31,372명	30,902명	-1.5%

기업당 평균채용 인원은 127.2명으로 지난해(129.1명)보다 1.9명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 500대 기업 중 322개사가 응한 가운데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194개사(60.3%),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49개사(15.2%)였다. 아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79개사(24.5%)에 달해 올해 대졸 일자리 규모는 이들 기업의 채용계획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올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은 아직 경기 회복세를 확신하지 못하며 채용규모를 쉽사리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지난해 500대 기업의 당초 채용계획과 실적을 비교한 결과 77.0%의 기업이 계획대로 채용했고, 14.0%의 기업은 계획보다 더많은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의 확실한 신호만 들어온다면 올해 대졸 일자리 시장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채용계획보다 채용규모 줄였다 7.4%, 기타 1.6%>

업종별로는 ‘유통·물류’(2.9%), ‘정유·화학’(2.7%) 업종에서는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 됐으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전기·전자’(-0.9%), ‘자동차’(-1.6%) 업종을 비롯한 다수 업종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로 ‘건설’(-13.8%) 업종 일자리는 다소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표2〉 업종별 채용예정인원

업 종	채용계획 확정기업	2013년		2014년		증감률
		전체	1사당	전체	1사당	
유통·물류	42개사	1,987명	47.3명	2,045명	48.7명	2.9%
정유·화학	38개사	1,002명	26.4명	1,029명	27.1명	2.7%
금융	34개사	1,813명	53.3명	1,805명	53.1명	-0.4%
정보통신	7개사	471명	67.3명	469명	67.0명	-0.4%
식음료	18개사	1,038명	57.7명	1,031명	57.3명	-0.7%
전기전자	23개사	12,270명	533.5명	12,165명	528.9명	-0.9%
기계·금속·조선	25개사	1,943명	77.7명	1,917명	76.7명	-1.3%
자동차	15개사	8,322명	554.8명	8,191명	546.1명	-1.6%
섬유·제지·잡화	12개사	555명	46.3명	505명	42.1명	-9.0%
건설	19개사	1,377명	72.5명	1,187명	62.5명	-13.8%
방송·출판·기타	10개사	594명	59.4명	558명	55.8명	-6.1%
계	243개사	31,372명	129.1명	30,902명	127.2명	-1.5%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 최상위 30대 기업과 101위~200위 기업들의 채용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30대 기업중 채용계획을 확정한 10개사의 올해 채용인원은 20,219명으로 작년의 20,189명보다 0.1% 늘어나고, 101위~200위 기업중 채용계획을 확정한 48개사도 지난해(2,300명)보다 1.1% 늘어난 2,326명을 뽑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상위 30대 기업은 작년 수준의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30대 기업이 500대 기업 전체 채용예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4%로 절대적인 만큼 올해 경기가 호전돼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을 늘릴 경우 고용시장 여건이 작년보다 개선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표3〉 매출액순위별 채용규모

매출액 순위	채용계획 확정기업	2013년 채용인원	2014년 채용예정	증감률
1~30위	10개사	20,189명	20,219명	0.1%
31~100위	32개사	4,439명	4,076명	-8.2%
101~200위	48개사	2,300명	2,326명	1.1%
201~300위	50개사	1,878명	1,851명	-1.4%
301~400위	49개사	1,233명	1,227명	-0.5%
401~500위	54개사	1,333명	1,203명	-9.8%
전체	243개사	31,372명	30,902명	-1.5%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적 고용구조가 정착되고 고용유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노동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2012년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 조사 기간 : 2013년 12월 12일(목)~ 1월 7일(화)
- 조사 방법 : 전화조사